

공산전투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전투장소를 중심으로

송언근*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Gongsan Battle Site: Focusing on the Battle Location

Un Gun Song*

요약 : 공산전투의 전투장소를 대상으로 그것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는 동수가 아니라 미리사일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신숭검 유적지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투 후 그 주변에 지묘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동수는 전투장소가 아니라, 미리사 전투 전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일시적으로 조우한 곳으로 보인다. 태조지의 지명 유래가 된 은해사 부근의 전투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전탄과 복현동은 미리사에서 패배한 고려군의 일부가 도주 중에 후백제군과 국지적 전투를 벌인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공산전투는 태조지, 동수, 미리사, 전탄 등 여러 곳에서 벌어진 연속적 전투가 아니라, 미리사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전투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공산전투,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 동화천, 환상산맥

Abstract :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aims to critically reinterpret the historical-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battle sites of the Gongsan Battle, are as follows. The key battle site of the Gongsan Battle was likely not Dongsu but Mirisa. Mirisa is presumed to have been located near the Sin Sung gyeom relic site, where the Donghwa Stream gorge comes to an end, and it appears that Jimyosa was founded in the vicinity after the battle. Dongsu, rather than being a true battlefield, seems to have been a place where the Goryeo and Later Baekje forces briefly encountered each other before the Mirisa battle. The battle near Eunhaesa, which is said to have given rise to the place name Taejoji, may not be a historical fact. Jeontan and Bokhyeondong may have been places where retreating Goryeo forces, after their defeat at Mirisa, fought localized skirmishes with Later Baekje troops. Thus, the Gongsan Battle was not a series of continuous engagements dispersed across Taejoji, Dongsu, Mirisa, and Jeontan, but rather a concentrated battle centered on Miri-sa.

Key Words : Gongsan Battle, Dongsu, Mirisa, Taejoji, Jeontan, Donghwacheon, Annular mountain range

I. 서론

927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왕건과 견훤은 대구의 팔공

산¹⁾에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였다. 공산전투(公山戰鬪)²⁾로 불리는 이 전투는 경주를 점령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만행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행위를 한 견훤을 응징하기 위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song@dnue.ac.kr)

해 일어났다. ‘고려사’에는 공산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의 동수(桐叟)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숭겸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보듯,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정예 기병 5,000명 대부분을 잃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참패를 당했다. 이 전투로 견훤은 경상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지만, 신라의 민심을 잃었다. 반면 왕건은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신라의 민심을 얻었다. 신라는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공산전투는 고창전투, 운주성 전투와 함께 후삼국 3대 전투로 불린다(문경현, 1979).

공산전투가 대구에 미친 영향은 지명에 나타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2011)에 수록된 대구광역시 행정 및 자연지명은 총 141개이다. 이 중 왕건과 관련된 지명은 15개로 전체의 10.6%를 차지한다. 한 인물이 전체 지명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지명 유래를 역사적 사건의 인물에 국한하면, 17개의 관련 지명 중, 15개가 왕건과 관련된다. 전체의 88.2%가 왕건 관련 지명이다. 대구의 지명 형성에 공산전투와 왕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친 공산전투이지만 관련된 기록은 단순하다. 특히 전투장소가 그러하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주요 역사서와 지리서에는 ‘공산에서, 공산의 동수에서, 또는 공산의 미리사(美理寺)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기록만 전한다. 그조차 문헌마다 전투장소가 다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공산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공산의 동수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는 공산의 미리사를 전투장소로 제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들은 후대로 가면서 지역의 속전들이 첨가되면서 전투장소는 증가하고, 복잡해진다. 대표적인 곳이 태조지(太祖旨)이다. 이런 문제들로 ‘공산전투’라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연구자들에 따라 전투장소가 다르다.⁴⁾

전투장소 중 가장 문제스러운 곳은 동수, 미리사, 그리고 태조지이다. 동수와 미리사는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가 두 곳 중 어디이냐의 문제이고, 태조지는 그곳이 공산전투의 일차 전투장소이냐의 문제이다. 이들이 공산전투의 중요 장소인 것은 그들 중,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공산전투의 전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투장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공산전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역사학은 학문적 특성상, 공산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보다는 언제, 왜 발생했으며, 그 영향은 무엇이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로 인해 역사학 연구에서는 공산전투를 후삼국 통일 전쟁의 일부로 다루며, 전투 전후의 정치적 정세와 전투가 후삼국 역사에 끼친 영향에 더 주목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산전투를 다룬 개별 연구들뿐만 아니라, 전투의 중심 인물인 신숭겸을 인물사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지리학 연구는 공산전투의 역사적 배경이나 발생 원인보다 전투가 일어난 장소와 왕건의 이동 경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 같은 학문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투장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덕민(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전영권(2003)도 공산전투와 왕건의 이동로를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대구를 소개하는 지리교양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조차 지명 유래를 그대로 활용하여 왕건의 이동로를 추정한 수준에 머문다. 최덕민 또한 무태(왕건 이동로)와 전탄(전투장소)의 지명 유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로 알려진 동수, 미리사, 태조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왕건의 이동로 분석에 앞서, 그 전제로서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이동 경로 또한 신뢰롭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문헌을 통해 전투장소들을 추출하고, 각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도출된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지도를 토대로 위치와 지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셋째, 두 분석을 종합하여 동수, 미리사, 태조지

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탄과 파군치 등 다른 전투장소들을 부차적으로 하여, 이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석한다.

II. 문헌 분석으로 본 전투장소와 그 역사지리적 의미

전투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고문헌이고, 다른 하나는 고지도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명유래집이다. 본 장에서는 각기 다른 출처에서 나타난 전투장소와 그들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문헌 분석

전투장소와 관련된 고문헌 자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공식 역사서에 수록된 내용,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와 같은 지리지에 기술된 기록, 그리고 셋째, ‘평산신씨장절공유사’처럼 문중 문헌이나 개인 기록에 등장하는 공산전투 관련 내용 등이다.

1)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전투장소

문헌 속 전투장소는 전투 당사자인 왕건과 견훤의 관점과 3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왕건과 견훤의 관점에서 본 전투장소

공산전투가 끝난 후, 견훤과 왕건은 서로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투장소를 언급했다. 이들이 언급한 전투장소를 위의 네 문헌 중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대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투가 끝난 927년 12월, 왕건에게 보낸 견훤의 서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좌장(左將)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드러냈으며…(삼국사기 열전 제10, 견훤 편)

좌상(左相)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벌레 꼬이게 되었습니다(고려사 태조 10년 12월).

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는 미리사이다. 견훤은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 김락의 시신이 방치된 장소인 미리사를 언급했다. 이는 견훤이 미리사를 공산전투의 상징적 장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듬해 정월, 왕건은 견훤에게 답신 형식의 서신을 보낸다. 왕건은 견훤과는 달리 공산전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그보다는 이전에 후백제가 패배한 전투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왕건의 서신에 나타난 전투장소는 다음과 같다.

“동수”에서는 깃발만 바라보고도 무너져 흩어졌고…
(삼국사기 열전 제 10 견훤)

“동수”에서는 아군의 깃발만 보고도 무너져 달아났고
…(고려사 세가 권 1)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왕건은 공산전투를 대표하는 장소로 동수를 언급했다. 그런데 왕건의 서신에 나오는 ‘고려군의 깃발“만” 보고도 달아났다’라는 것은 전투에서 패하여 달아났다고보다, 전투도 하기 전에 고려군의 기세에 놀라 도망갔다는 뜻이다. 이는 김락이 죽은 장소인 ‘미리사’를 공산전투의 상징으로 제시한 견훤과는 다른 장소적 맥락이다.

공산전투의 당사자인 견훤과 왕건의 서신에 나타나는 전투장소는 동수와 미리사 두 곳이다. 이들 중 동수는 현재의 동화사⁵⁾를 지칭하므로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반면 미리사의 위치는 알 수 없다.

(2) 3자의 관점에서 본 전투장소

왕건과 견훤이 서신에서 언급한 동수와 미리사가 1인칭, 즉 주관적 맥락에서의 전투장소라면, 김부식과 일연이 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언급한 전투장소는 3인칭적 관점에서의 기록이다. 보다 객관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두 사서에 기록된 전투장소는 다음과 같다.

천성 2년(927년) 10월, 태조는 정예 기병 5,000으로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송겸이 죽고, 전군이 패배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삼국사기 열전 제 10, 견훤).

태조는 정에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승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삼국유사 권 제 2 기이, 후백제 견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제시한 전투장소는 공산이다. 기록에서 보듯이 ‘공산 아래에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 공산에서 전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은 산 전체를 포괄하는 지명이므로, 이들 사서에는 ‘공산의 어디’라는 구체적인 전투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후대 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전투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에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승겸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려사 태조 10년 9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 지냈으며, 직접 정에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가서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을 요격하였는데, 크게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견훤의 병사들이 왕을 에워싸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자 대장 신승겸과 김락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못 군사들도 패배하여 달아나고 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왕이 두 사람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김락의 동생 김철과 신승겸의 동생 신능길, 아들 신보를 아울러 원운으로 삼고,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하여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고려사절요 권 1 태조 10년 9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동수’라는 구체적인 전투장소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묘사’라는 사찰도 언급한다. 지묘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곳이다.

두 장소 중 동수는 ‘그곳에서 크게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 전투가 실제 벌어졌던 장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찰임을 알 수도 있다. 반면 지묘사는 기록상으로 공산전투 이후에 건립된 사찰로 파악되며, 창건 시기와 목적은 명확하지만, 그곳의 위치와 공산전투와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읍지 등에 기록된 전투장소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구도호부 고적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미리사: 해안현에 있다. 혹은 해안을 ‘미리’라고도 한다. 견훤이 신라의 도성 경주 가까이까지 침략해 오자, 경애왕이 고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도성에 들어닥쳐 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고는 국고의 보배와 무기를 다 탈취하였다. 왕족의 자녀들과 여러 장인 중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견훤에게 귀의하였다. 고려 태조가 정에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 미리사 앞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장군 김락과 신승겸이 전사하고 군대가 패배하여 태조는 겨우 몸을 피해 죽음을 면하였다.

이 문헌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처음으로 미리사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전투가 ‘미리사 앞’에서 일어났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이다.

미리사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정확하지 않다. ‘해안현에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기록으로 보면, 미리사는 해안현에 속한 팔공산 일대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에도 미리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⁶⁾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묘사된 동수 전투의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일하게 미리사 전투로 전유되어 나타난 점이다. 이는 동수와 미리사가 서로 다른 전투장소였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투가 서로 다른 지명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문헌 중 하나는 전투장소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구도호부와 경계를 이루는 영천군의 고적조에서도 공산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난다. 태조지가 그곳이다. 해당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을 서쪽 30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해 퇴병하여 공산 아래의 한 조그마한 봉우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명을 ‘태조지’라 부르게 되었다.

기록에 나오는 고을 서쪽 30리쯤은 팔공산 동사면이다. 이곳 어디쯤 견훤과의 전투에서 패한 태조 왕건이 피신한 산봉우리가 있었고, 그곳을 사람들은 ‘태조지’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천 지역의 팔공산에도 공산전투와 관련된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도 새로운 전투장소가 나타난다. 그곳은 전탄(箭灘)이며,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전탄: 해안현 서쪽 5리에 있다. 고려 태조와 견훤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화살이 수중에 쌓였기 때문에 전탄이라 한다. 금호강 상류에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전탄을 사이에 두고 격렬히 대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의 양상은 치열했으나, 승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삼국사기’부터 ‘여지도서’까지의 역사서 및 지리지에 나타난 전투장소들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문헌에 기록된 전투장소는 총 다섯 곳으로, 공산,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 등이다. 이들 중 ‘공산’은 팔공산 전체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구체적인 전투가 벌어진 개별 장소라기보다는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을 포괄하

는 지리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투와 직접 관련된 장소는 문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의 네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네 장소 중에서 문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미리사이며, 그다음은 동수, 그리고 태조지, 전탄 순이다.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지리서인 읍지는 대표적인 지리지이자 지역사이며, 행정 자료들을 담고 있는 정보의 보고이다. 특히 읍지는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전국적인 관찰지지도보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정보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구읍지’에는 공산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대구와 영천 읍지에 기록된 전투장소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대구 읍지’에도 앞서 살펴본 동수, 미리사, 태조지, 전탄 등의 전투장소가 나온다. 또한 ‘대구 읍지’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투장소가 등장한다. 그곳은 파군치(破軍峙)이다. ‘고려 태조가 그곳에서 파군당했기 때문에 파군치라 한다’라는 지명 유래를 가진 이곳은 1768년 ‘대구 읍지’에도 나타난다. 이는 이와 관련된 지명 유래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표 2의 ‘대구 읍지’에 수록된 전투장소 중 출현 빈도는, 표 1과 마찬가지로 미리사가 가장 높다. 미리사는 고적조

표 1. 삼국사기에서 여지도서까지 고문헌 속 전투장소

장소/출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구	동수	○	○	○		
	미리사	○	○	○	○	○
	전탄					○
영천	태조지				○	○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

표 2. 읍지의 전투장소

장소/출처	대구 읍지 (1768)	대구 읍지 (1800)	대구 부지 (1831)	대구 읍지 (1883년 경)	영읍지 (1892)	대구 읍지 (1899)	대구 읍지 (1907)	대구 읍지 (1924)	영천 읍지 (시대미상)	영천 읍지 (1899)
동수								○		
미리사	○		○	○	○	○	○	○		
파군치	○	○	○		○	○	○	○		
전탄	○	○	○	○		○	○	○		
태조지									○	○

출처 :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가 없는 1800년 읍지와 1924년 읍지를 제외하면 모든 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문헌 간 전투장소 인식에서 미리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읍지들의 미리사 내용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와 같이 ‘고려 태조가 정병 5천을 거느리고 미리사 앞에서 견훤을 기다렸다가 크게 싸웠다’라고 되어 있다.

미리사 다음으로는 파군치와 전탄이 동일한 빈도로 등장한다. 동수는 1924년 읍지만 전투장소로 기술할 뿐, 그 외 다른 읍지들에서는 왕건이 도망가다가 잠시 앉았다는 동화사 암자인 염불암의 일인석(一人石)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과정에 사찰명이 언급될 뿐이다.

3) 사적 문헌에 기록된 전투장소

공산전투와 관련된 기록은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나 지리지뿐만 아니라, 문중 문헌과 개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자료는 평산신씨 문중의 문헌이다.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신승겸의 후손들이 작성한 이들 문헌에는, 공산전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집안에 전승된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국가 편찬 역사서에 문중 내 구전과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서사적인 형태로 재구성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평산신씨 문중 문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7세기 초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申氏莊節公遺事)’와 17세기 후반에 편찬한 ‘태사장절공유적(太師莊節公遺蹟)’이다. 이들에 수록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승겸의 외예손인 손순효가 1479년에 지은 “장절공유사”로, 여기에 다음과 같은 공산전투 관련 내용이 있다.

태조 10년 정해년(927) 가을 9월에 견훤이 신라를 습격하여 신라 왕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태조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하였다. 그리고는 친히 정예군 5천 명을 이끌고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의 군대를 맞았다. 크게 일전을 벌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져서 견훤의 군대가 태조를 포위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신승겸은 당시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태조를 대신하여 전사하였다(춘천시, 2023).

“장절공유사”에는 전투장소로 ‘고려사’, ‘고려사절요’

와 마찬가지로 동수를 제시하며, 앞에서 살핀 다른 문헌들처럼 신승겸이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손순효가 밝혔듯이 고려사를 참고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보다 213년 뒤인 1692년, 신승겸의 외후손인 박세채가 지은 “장절공행장”에는 신승겸의 전사 상황 이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지묘사 창건과 그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승겸은 대장으로 참전을 하였는데 용모가 태조와 매우 흡사하였다. 신승겸은 전세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을 알고 태조를 대신하여 죽기를 청하고... 태조 대신 어차(御車)를 타고 김락과 함께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견훤의 병사들은 신승겸을 태조로 알고 목을 잘라 창에 꽂고 돌아갔다. 견훤 군대의 포위가 조금 풀리자 태조는 겨우 혈혈단신으로 탈출하였다... 신승겸이 전사하였던 대구의 “공산”에 명복을 비는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묘사”이다. 지묘사에 일품 토지를 각각 삼백묘를 하사하였다. 이어서 해안현으로 하여금 절에 기름을 공납하여 연등 행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춘천시, 2023).

기록에서 보듯이 ‘장절공행장’에는 전투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도 공산전투 이후라는 건립 시기, 신승겸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서 기능이라는 건립 목적, 해안현의 지원이라는 행정적 지원은 명확하게 기술하였지만, 공산에 있었다는 것만 제시할 뿐, 지묘사의 정확한 위치는 없다.

지묘사의 위치가 문헌에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1686년, 신흠(申欽)이 지은 ‘유명 조선국 중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 사세자이사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동지춘추관 성균관사 증시문절신공 신도비명’에서이다. 이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태조가 신승겸 공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 “전사한 곳”에 원찰을 세웠는데, “지묘사”라고 이름하고 토지 3백결을 하사하였다(춘천시, 2023).

기록에 따르면, 지묘사는 신승겸이 전사한 장소에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

고 앞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신승검은 왕건의 여차를 타고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그 죽음을 통해 견훤 군의 포위망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는 신승검의 전사한 곳은 단순한 전투 현장이 아니라, 전투의 전환점이자 종결 지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묘사 지역은 공산전투의 최대 격전지이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묘사와 더불어 전투장소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흔적은 바로 ‘표충사(表忠祠)’라는 사우이다. 표충사와 지묘사의 관계는 신홍이 1609년에 지은 ‘고려태사장절충렬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만력 정미년(1607, 선조 40)에 이르러 신승검 공의 외예손 유영순 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신승검 공의 유적을 둘러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외선조를 추념하며 말하였다. 크나큰 충절을 이룬 그 장소가 황폐해지고 사적을 전할 비석조차 없으니, 이는 후손된 자의 책임이다. 이에 유영순 공은 영남에 거주하던 신승검의 후손들을 불러모아, 인력을 동원하고 재물을 모아 사우를 창건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승검 공의 사우를 지묘사 터에 창건하였다(춘천시, 2023).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승검의 후손들은 소실된 지묘사 터에 사우를 새롭게 건립하였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표충사이다. 따라서 표충사와 그것이 있는

신승검장군 유적지는 지묘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는 이 지역은 신승검의 전사지(戰死地)를 기리는 공간이자, 전투가 실제로 벌어진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지도 분석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회화식 지도의 특성상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기입된다. 이런 특성으로 고지도 속 지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또한 지명은 어휘 가운데 보수성이 제일 강한 존재이어서 한번 생성되면 내내 본래대로 사용됨이 보편적이다(도수희, 2007:9). 따라서 고지도에 수록된 전투장소들은 그것의 위치를 넘어,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3은 대구부와 영천군의 고지도들에 나타난 전투장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는 앞에서 살펴본 동수(동화사), 미리사, 표충사(또는 표충서원), 전탄, 태조지 등의 전투장소에 왕산(王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왕산의 위치와 지명 유래에 기초한다.

왕산의 지명 유래가 처음 등장하는 ‘여지도서’에는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쫓기다가 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왕산이라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 지명유래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군과 교전할 때 앉았던 산이어서 왕산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 두 유래를 종합하면, 왕산은 전투 당시 왕건이 머물렀던 지휘 장소이자 도주 장소로서의 상

표 3. 고지도의 전투장소

장소/지도	해동지도	영남지도	광여도	청구도	대동방여전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청구요람	여지도	안동도회	조선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경주도회	지승
동화사(동수)	○	○	○		○	○	○		○		○	○	○	○
미리사	◎													
왕산	◎	○	○		○	○	○					○		
표충사	○			○				○			○		○	
표충서원												○		
전탄				○	○	○	○	○			○			
태조지	◎													

출처 : 규장각

*◎: 지도 주기에 나타나는 것, *표충사는 일명 표충서원으로 불리이지면서 유럽에서 수호하다가, 1871(고종 8년) 조령으로 훼손되었다.



그림 1. 광여도의 왕산과 표충사(네모 점선: 표충사, 실선 원: 왕산)

정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왕산은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지묘사(현 표충사) 뒤에 위치한다.⁷⁾ 이를 그림 1의 광여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왕산 앞쪽이 실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고지도 속 전투장소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고지도에 등장하는 곳은 동수, 곧 동화사이다. 이는 동화사가 공산전투의 주요 장소라기보다는, 지도 제작 당시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화사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왕산, 표충사(표충서원), 그리고 전탄이다. 이는 지묘동을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는 왕산과 표충사(표충서원)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공산전투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화천과 금호강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전탄 역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전투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문헌에서는 자주 언급되었던 미리사는 해동지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미리사가 이미 오래전에 폐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지도에서는 지도 주기의 고적 항목에 ‘미리사는 해안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미리사뿐 아니라 태조지 역시 해동지도의 영천군 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하다. 이는 태조지의 유래가 영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으며, 이 장소가 영천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명유래집 분석

표 4는 대구시에서 발간한 ‘대구지명유래총람’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유래집’에 수록된 전투

표 4. 지명유래집의 전투장소

대구시 지명유래총람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파군재	파군재
아래 파군재	
윗 파군재	
복현동	복현동

장소들 중, 새로운 곳들이다.

두 지명유래집에 새롭게 등장하는 전투장소는 복현동이다. 그리고 ‘파군재’는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로 세분된다. 이들의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아래 파군재, 윗 파군재: 신송점의 군사가 1차로 패하여 흩어진 곳을 아래 파군재, 2차로 패한 곳을 윗 파군재로 부른다.

복현동: 927년 견훤이 신라 궁궐을 습격해 경애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한 뒤 돌아가는 길에, 이 고개에 병력을 매복시켜 추격해 오던 왕건의 고려군을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무찔렀다는 데서 ‘복흥동’ 또는 ‘견훤담’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명 유래로 볼 때, 전투장소로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곳은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이다. 이들은 이미 확인된 파군재를 보다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현동은 대구에 있는 전투 지명 중 유일하게 견훤의 승리와 관련된 곳이지만, 또 다른 지명 유래가 있다. 그것은 ‘복현동 야산에 경주 이씨의 묘지가 있었고, 이 묘지의 주인인 7대조 무실공이 영조 4년(1728)에 분무 1등 공신으로 봉해지면서, 영조가 하사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엎드려(伏) 현모(賢慕)한다”는 뜻으로 복현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현동’이라는 지명이 공산전투와 관련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상의 고문헌, 고지도, 지명유래집 분석을 종합하면, 전투장소는 모두 여덟 곳으로 정리된다. 이 중 동수와 미리사는 왕건과 견훤이 직접 언급한 장소이고, 지묘사는 창건자인 왕건의 입지 선정에 담긴 장소의 속성을 근거로 판단한 장소이다. 따라서 이들 세 곳은 문헌적 근거가 명확하여 이곳이 전투장소인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태조지, 아래 파군재, 윗 파군재, 전탄은 지명 유래를 근거로 추론한 전투장소이다. 복현동도 지명유래로 추정할 곳이지만, 유래로만 보면 공산전투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다. 왕산은 지명 유래와 지리적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추정된 전투장소이다.

이들은 다시 위치적 특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지모사와 왕산은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아래 파군재와 윗 파군재 역시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 각각 지모사와 파군재로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장소는 동수, 미리사, 지모사, 태조지, 파군재, 전탄, 복현동 등 일곱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지도 분석으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갈수록 전투는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형의 유리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이다. 공산전투는 고려와 후백제 두 나라의 국왕이 직접 참여한 전투여서, 어떤 전투보다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문헌 속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위치와 지형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해석해 본다.

1. 위치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

전투장소로 분류한 동수, 지모사, 왕산, 파군재, 전탄, 복현동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동수는 현 동화사 지역이

고, 왕산과 지모사는 신송점 유적지 부근이다. 파군재는 현재 파군재 삼거리 부근이고, 전탄은 동화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부근이다. 복현동은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하였다는 지명 유래로 볼 때, 현 공화고 주변으로 추정된다. 이들과 달리 태조지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부의 서쪽 30리쯤에 있다고만 되어 있다. 태조지 위치를 처음으로 밝힌 연구자는 문경현(1979)이다. 그는 태조지는 은혜사 입구 쪽이라 밝혔다. 이 시기의 은혜사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현재 운부암의 아래 자락인 해안평에 위치해 있었고(류영철, 2004:115), 이름은 은혜사가 아닌 해안사였다.

전술한 전투장소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⁸⁾ 그림에서 보면 전투장소들의 위치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 인접한 위치이다. 전자의 특성을 보이는 곳은 태조지, 동수, 전탄, 복현동이고, 후자의 특성을 보이는 곳은 왕산, 지모사,⁹⁾ 그리고 파군재이다. 위치로 본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모사 주변에는 왕산과 파군재 외에도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장소가 있다. 동화천 협곡 중간에 위치한 나팔고개(그림 2의 D)가 그곳이다. 지모사에서 직선 거리로 약 1.2km 떨어진 이 고개에는 고려군과 후백제군의 전투와 관련된 지명 유래가 있다. 즉, ‘고려군이 고개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후백제군을 향해 나팔을 불며 진군했다’는 설,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포위하고 진격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설, 그리고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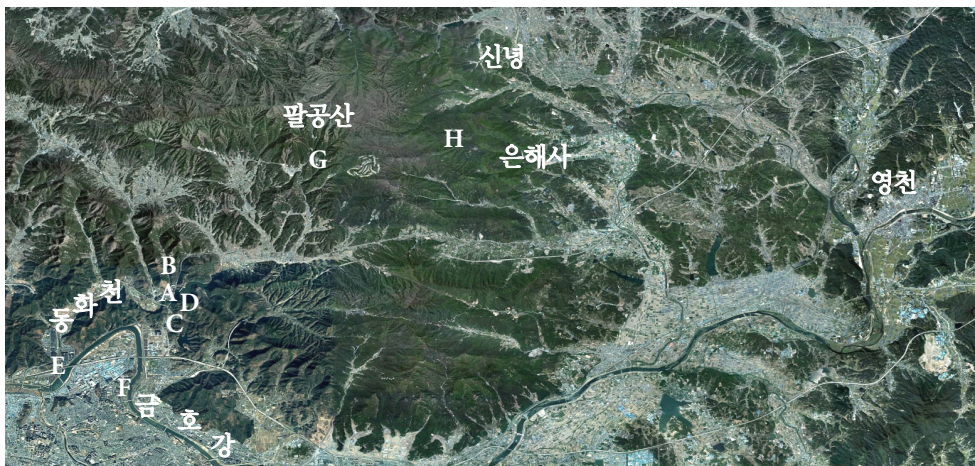


그림 2 전투장소 위치(A:지모사, B:왕산, C:파군재, D:나팔고개, E:전탄, F:복현동, G:동수, H:해안사)

파한 뒤, 이 고개를 넘으며 나팔을 불었다’는 설이 그것이다(류영철, 2004:116). 나팔을 분 주제가 어느 쪽인지, 나팔을 분 목적과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팔고개의 위치로 볼 때, 이곳은 지묘사 일대의 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 나팔 소리가 울렸던 나팔고개와 전투가 벌어진 지묘사, 왕산, 파군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이 일대가 공산전투의 주요 전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앞의 전투장소들이 포함된 지묘동 지명 유래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시 지명유래총람’에 따르면, 지묘동은 신승겸과 김락을 포함한 고려 장수들이 기묘한 전술로 왕건을 구한 데서 유래한다. 이는 고려 장군들이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쳐 싸운 전장이 지묘동임을 의미한다. 그 흔적이 지묘사, 왕산, 파군재 등이다.

독립적 위치의 전투장소로 분류하였던 전탄과 복현동도 넓게 보면 앞의 전투장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묘사, 왕산, 파군재, 나팔고개 등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은 모두 동화천 하곡 상에 있다. 이는 동화천 하곡, 특히 나팔고개 하류 구간은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탄은 동화천 최하류에 위치한다. 이런 위치로 전탄은 동수나 태조지와 달리 지형적 제약없이 동화천 하곡을 따라 지묘사나 왕산 등 다른 전투장소들과 쉽고, 빠르게 연결된다. 이는 전탄이 지묘사 지역의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복현동은 그림 2에서 보듯이 고려군이 패한 파군재에서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파군재와 복현동 사이의 금호강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뿐만 아니라, 이 충적평야에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삼국시대에 조성된 도로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도로는 파군재 방향인 북동쪽에서 금호강 방향인 남서쪽으로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창석, 2021:20). 이러한 위치적·지형적·도로적 특성은 복현동이 파군재 전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탄과 복현동이 지묘사 부근의 전투와 연결될 가능성은 ‘고려사 세가 권제1, 태조 10년조’에 실린 견훤의 편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좌상 김락이 미리사앞에서 해골을 벌에 쫓이게 되었습니

다. 죽거나 포획된 자가 많았고, 추격하여 붙잡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포로가 된 병사들뿐 아니라, 전투 중 도주하다가 붙잡힌 고려군도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승겸의 전사로 느슨해진 포위망을 뚫고 일부 고려군은 동화천을 따라 서쪽으로, 또 다른 일부는 파군재를 거쳐 남쪽으로 퇴각하던 중, 전탄과 복현동에서 후백제군과 국지적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수와 태조지는 전투와 관련된 단일 지점으로만 나타나며, 인근에 다른 전투 지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산전투에 투입된 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명진(2018)의 연구에 따르면 왕건의 고려군은 5,0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었고, 견훤의 후백제군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¹⁰⁾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참여한 공산전투는 고려와 후백제 두 왕이 직접 참여한, 국운이 걸린 일전이었다. 이 같은 의미의 전투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전투는 주변 지형을 따라 확산되고 시간적으로도 지속된다. 그런 전투가 동수와 태조지에서 일어났다면 전투 상황은 지묘사 지역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면 동수와 태조지 부근에도 지묘사 부근처럼 전투 관련 장소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동수와 태조지만 있다.

2. 지형과 지질로 본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에는 공산전투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천성 2년(927년) 10월, 태조는 정예 기병 5,000으로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삼국사기 열전 제 10, 견훤).

왕이...직접 정예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가서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을 “요격”하였는데, 크게 싸웠으나 불리하였다(고려사절요 권 1 태조 10년 9월).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기다리다 싸웠다”와 “요격”을 이도환(2015:28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가 정에 기병 5천을 데리고 공산 밑에서 견훤을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다(太祖以精騎五千 “要” 萱於公山下大戰)’라고 적혀 있다. 원문의 ‘요(要)’자는 ‘기다린다’는 뜻을 지녔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표주읍주동국사략’에는 ‘요(邀)’라고 기재해 놓았

다. 이는 도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적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요격(邀擊)을 구성하는 글자이다. 이는 고려군이 먼저 와서 대기하였음을 뜻한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도착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형을 고려한 사전 전략의 수립, 즉 전략적 거점을 선점하고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적을 맞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산전투는 겉으로는 견훤이 경애왕을 시해하고 왕비를 능욕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건이 927년까지 공들여 구축한 경상도 지역의 지배권을 사수하려는 절박한 목적이 있었다.¹¹⁾

이처럼 정치적·군사적으로 중대한 전투를, 경애왕의 피살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급히 달려와 피로가 누적된 채로 치렀다는 해석¹²⁾은 전투의 중요성으로 볼 때 타당성이 낮다. 특히, 문경현(2000)이 지적하듯, 왕건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군사적 경륜을 겸비한 전략가였다. 그런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전투에 임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따라서 ‘기다렸다’가 전투하였다’라는 표현은 왕건이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갖고 전장을 사전에 선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전투장소들의 지형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팔공산 일대의 지질도이고, 그림 4는 지모사와 동수 주변의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중앙부에 있는 격자형의 점으로 표시된 북서에서 남동 방향의 타원형 지역의 지질은 화강암이다. 그 외곽에 화강암 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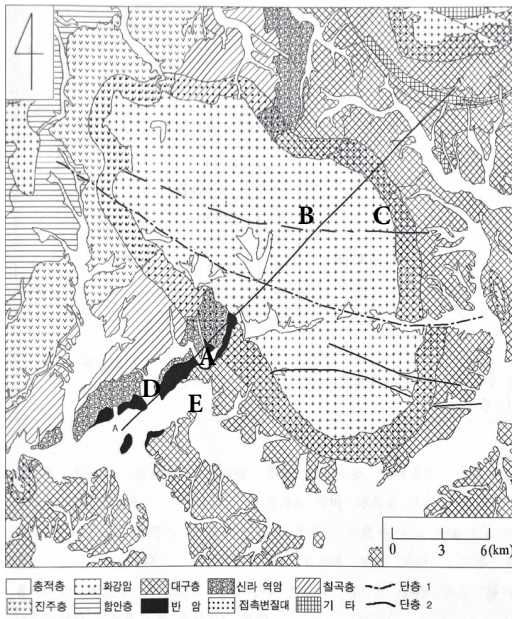


그림 3. 팔공산 일대 지질과 전투장소(A:지모사, B:동수, C:해안사, D:전탄, E:북현동)

출처 : 조우영, 2002,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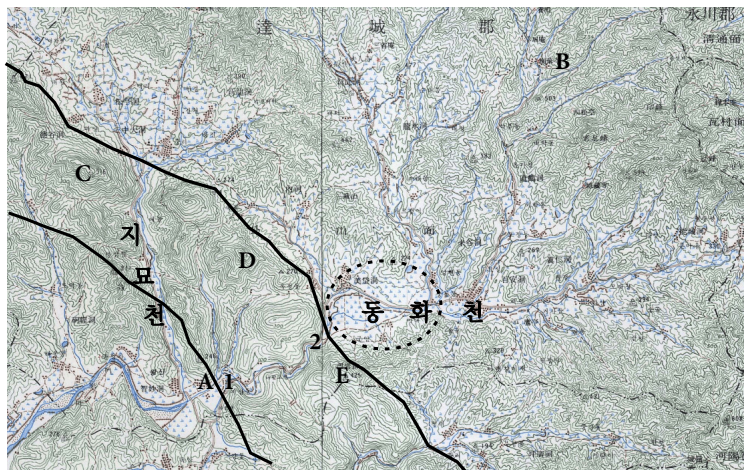


그림 4. 지모사와 동수 주변 지형(A:지모사, B:동수, C:응해산, D:응봉, E:문암산, 1:협곡 서쪽 끝, 2:협곡 동쪽 끝, 점선 원:미대분지, 검은선 사이:환상산맥)

대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굽은 점으로 표시된 지역의 지질은 변성암이다. 그리고 변성암 지대 외곽은 모두 퇴적암이다.¹³⁾

화강암으로 된 팔공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변성암대에 있는 산열을 ‘환상산맥(環狀山脈)’이라 부른다. 이는 그 형태가 반지 같기 때문이다. 환상산맥은 침식에 강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은 좁은 협곡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예가 그림 4의 1과 2 사이에 있는 동화천 협곡이다. 이곳의 길이는 약 2.6km에 달한다. 그리고 환상산맥과 팔공산체의 경계부에는 침식분지가 발달한다. 그림 4의 미대분지가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은 침식에 강한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환상산맥과 침식에 약한 화강암으로 된 팔공산체와 만나는 경계부로서, 지질적 차이로 차별침식이 생기면서 발달했다. 환상산맥을 빠져나온 동화천은 퇴적암 지역을 흐르면서 다시 넓은 하곡 속을 흐른다.

지질과 지형의 관계는 지묘천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파계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지묘사 부근에서 본류인 동화천에 합류하는 지묘천은 응해산(그림 4의 C)과 응봉(그림 4의 D) 사이에서 환상산맥을 통과한다. 이 지역에서 지묘천은 좁은 협곡 속을 흐른다. 또한 환상산맥의 산들은 침식에 강하게 저항하여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의 응해산(518.2m), 응봉(450.5m), 문암산(427.1m)들이 그들이다. 반면 지묘사 남쪽과 동쪽은 침식에 약한 퇴적암 지역이어서 고도가 낮고 경사도 완만하다. 대표적인 곳이 지묘사 남쪽 파군재 주변의 구릉들이다. 이 같은 지형 특징은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형과 전투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지묘사 지역의 지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서쪽 지점의 하곡 폭은 60m 정도로 매우 좁다. 반면 협곡부를 벗어나면 하곡 폭은 넓어져 협곡 바깥쪽에서는 약 200m, 그곳에서 450m 정도 떨어진 지묘사 부근에서는 400여m에 이른다. 이러한 지형 형태는 지묘사에서 협곡 쪽으로 갈수록 폭이 점차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과 비슷하다. 이는 지묘사 지역이 환상산맥 협곡을 빠져나오는 후백제 군대를 효과적으로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의미한다.

지형 특성과 더불어, 팔공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화천 하곡은 대구와 영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경주에서 영천을 거쳐 대구 서쪽으로 가려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동화천 하곡이 군사 이동의 통로로도 중요한 곳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지질·지형적 특성과 교통로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묘사 지역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기다렸다가 싸웠다’라는 전술적 표현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약 60m의 낮고 넓은 하곡과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지묘사와 달리 동수(그림 4의 B)는 해발 480~500m의 팔공산 서사면의 높고 깊은 능선과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동수의 북쪽과 동쪽은 팔공산 정상부(1,192m)를 포함하여 해발 900m 전후의 고봉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동수 지역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가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수에는 지묘사 지역처럼 ‘넓은 하곡 → 협곡 → 넓은 하곡’이라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형이 없다. 이 같은 지형 특징으로 볼 때, 견훤의 군대가 동수 쪽으로 진입할 이유가 없고, 기병의 왕건 군대는 동수 지역으로 후백제군을 유인 할 지형적 장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수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나타나는 ‘기다렸다가 싸웠다’라는 전략적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는 태조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해안사 위치와 주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팔공산 동쪽 사면에 위치한 해안사는 비로봉(1,192m)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신령봉, 삿갓봉, 은혜봉 등 해발고도 약 900m 내외의 봉우리들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사면에 위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안사의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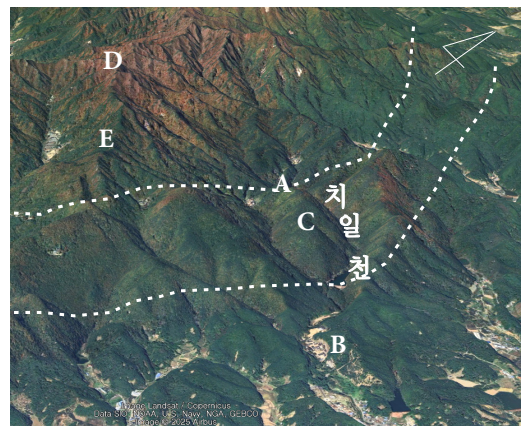


그림 5. 해안사 주변 지형(A:해안사, B:현 은혜사, C:태실봉, D:삿갓봉, E:은혜봉, 흰 점선 사이: 환상산맥)

은 샷갯봉(931m)에서 뺨아내린 능선에, 남쪽은 은혜봉(898m)에서 이어지는 능선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두 능선 사이에는 해발 465m의 태실봉이 있다. 따라서 해안사는 넓게는 샷갯봉과 은혜봉 능선 사이, 좁게는 태실봉과 샷갯봉 능선 사이에 위치하며, 그 고도는 340~360m 사이이다. 이런 위치로 해안사는 치일천 최상류이고, 하곡 폭은 좁다. 특히 해안사와 현재의 은혜사 사이는 환상산맥 지역이어서 치일천의 하곡 폭은 매우 좁다. 이는 지형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지형 특성으로 볼 때, 견훤의 군대가 해안사 지역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기병의 고려군이 이곳에 진을 칠만한 전략적 이점 또한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수, 지묘사, 태조지와 더불어 또 다른 전투장소로 거론되는 전탄은 동화천과 금호강의 합류 지역에 위치하며, 지질은 퇴적암이다. 지형 및 지질 특성으로 전탄 주변에는 폭 1km에 달하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이 평야는 전탄에서 지묘사로 이어지는 하곡을 따라 좁게는 300m, 넓게는 1km의 넓이로 약 7km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다(그림 2 참조). 이 같은 지형으로 전탄 지역에는 지묘사 지역처럼 왕건의 군대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면서 견훤의 군대를 기다릴 지형은 없다. 이는 전탄에서 왕건의 군대가 견훤의 군대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현동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투에 패한 고려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던 중, 이를 추격하던 후백제군과 국지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다. 이는 북현동은 지형 특징을 고려한 군사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IV.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본 장에서는 전장들의 분석을 토대로 전투장소로 알려진 동수, 미리사, 지묘사, 태조지, 파군재, 전탄, 북현동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재해석하도록 한다.

1. 동수, 미리사, 지묘사

동수와 미리사를 처음 언급한 것은 견훤과 왕건이다.

전투 이후, 서로에게 보낸 서신에서 견훤은 미리사를, 왕건은 동수를 전투장소로 언급하였다. 이들이 서로 다른 장소를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승자인 견훤이 미리사를 언급한 것은, 그곳이 영광스러운 승전지이자,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반면 패자인 왕건이 동수를 지목한 것은, 공산전투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동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동수는 공산전투 당시 후백제 관련 군사들¹⁴⁾이 도망간 유일한 장소이다.

왕건에게 공산전투는 되새기기조차 싫은 기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견훤의 서신에서 공산전투가 언급된 이상, 이를 외면하면 견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왕건 역시 이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부득이하게 동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왕건의 이러한 심리는 ‘고려사 열전 제5권 유금필 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조 11년(928) 유금필이 왕명으로 탕정군에 성을 쌓았다. 이때 백제 장군 김훤, 애식, 한장 등이 무리 3,000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청주를 침략하였다...유금필이...청주로 달려가서 백제군과 싸워 무찌르고 독기진까지 추격하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말을 달려 중원부에 이르러 태조를 만나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었다. 태조가 말하기를, ‘동수의 전투에서 신승겸, 김락 두 명장이 죽어 국가의 걱정이 깊었는데,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짐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도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왕건은 신승겸과 김락이 동수전투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수’라는 장소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왕건은 ‘동수에서 족하의 부하들이 고려군의 깃발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였다. 이것은 왕건이 견훤과 유금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내용상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소인 동수에서 후백제군이 도망쳤다면, 그곳은 고려군이 우세했던 장소이어야 하고, 반대로 신승겸과 김락이 전사한 곳이라면 동수는 고려군이 열세였던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동수에서 후백제군이 도망갔다는 것이 허위이거나, 신승겸과 김락이 동수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견훤은 ‘미리사’라는 지명을 언급하지만, 동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동수가 왕건에게 유리한 장소이고, 미리사는 견훤에게 유리한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신승검과 김락이 동수 전투에서 죽었다’는 진술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왕건 입장에서 동수는 공산전투 전체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였는데, 그곳에서 두 장수가 전사했다는 것은 논리적 충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적 모순은 신승검의 시신을 찾은 곳이 동수가 아닌 그곳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지묘사 부근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왕건은 그곳에 신승검의 명복을 빌도록 지묘사를 창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신승검이 죽은 실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리함에도 동수전투에서 신승검과 김락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볼 때, 동수는 전투장소라기보다 왕건이 선택한 공산전투의 상징적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산에서 이루어진 전투를 고려왕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인 동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동수가 공산전투에서 중요한 전투장소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장에서 보았듯이 지묘사가 신승검이 전사한 자리에 세운 사찰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1686년(숙종 12년), 박세채가 지은 ‘장절신공별전(壯節申公別傳)’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태조는 군진으로 돌아간 뒤 장절공의 시체를 찾았으나 머리가 없어서 판별할 수 없었다. 대장 유금필 등이 말하였다. “신승검의 왼쪽 다리 아래에 북두칠성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징표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여 과연 장절공의 시신을 찾았다(춘천시, 2023).

이 기록에 따르면, 지묘사 부근에는 수많은 고려군의 시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신승검의 시신을 간신히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묘사 일대가 왕건과 견훤 양측의 군사들이 사활을 걸고 맞붙은 전투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상의 전투장소에 대한 위치적·지형적 특성과 전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산전투는 동수가 아니라 지묘사 주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기 기록된 전투장소인 동수와 미리사를 비교해 보면, 동수는 전술한 것처럼 전투장소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미리사는 견훤의 서신에 김락이 죽은 장소로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구읍지’ 등 여러 지리지에서 공통적으로 ‘미리사에서 견훤군을 기다렸다가 싸웠고, 그곳에서 신승검과 김락이 전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전투는 미리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조선 초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해안현에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반면 지묘사는 오늘날의 표충사 지역을 통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지묘사 자리였던 현재의 표충사 일대는 매복하여 후백제군을 기다리기에 지형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 같은 전투가 이루어진 곳은 미리사 앞이다. 이는 미리사와 지묘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락의 해골이 미리사 앞에 있다’는 견훤의 서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공산전투 당시 미리사는 실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묘사는 전투 이후, 왕건의 지시에 따라 신승검의 전사지에 창건된 사찰이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미리사 인근에서 신승검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후 그 자리에 지묘사를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리사가 현 신승검장군 유적지 부근에 있었고, 그곳이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태조지

태조지를 은해사와 연관지어, 그 부근에서 1차 전투가 있었고, 왕건이 패배했다는 주장은, 문경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선 길에 오른 견훤의 군은 공산동의 은해사 입구, 태조지에서 급박하게 신라를 구원하려고 달려온 태조의 오천 기병과 접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태조는 대패하고 말았다(문경현, 1979:91).

이때부터 태조지는 은해사 부근으로 비정되었다. 물론 이때의 은해사는 그 전신인 해안사를 의미한다.

문경현으로부터 시작된 ‘제1차 전투지로서의 태조지’에 대한 인식의 핵심 문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조

지 기록에 그 부근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헌에 수록된 원문인 ‘太祖旨: 在郡西三十里許, 俗傳高麗太祖爲甄萱所敗, 退保公山下一小峯, 因名爲太祖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太祖旨: 在郡西三十里許” 태조지는 ‘영천군의 서쪽 30리쯤 되는 곳에 있다’는 위치 설명이다.
 “俗傳高麗太祖爲甄萱所敗” ‘속전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하였다’는 민간 전승이다.
 “退保公山下一小峯” ‘그 후 물러나 공산 아래의 한 작은 봉우리에서 몸을 보존하였다’고 전한다.
 “因名爲太祖旨” ‘이로 인해 그곳을 태조지라 불렀다’는 명명 이유이다.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기록에는 태조지 인근에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전투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문맥상, 태조 왕건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견훤에게 패한 후, 퇴각하여 공산 아래의 한 봉우리, 즉 태조지 부근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한 것임을 뜻한다. 결국 태조지가 실제 전투지였는가의 여부는 왕건이 그곳에 머무기 이전,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은혜사의 전신인 해안사 부근이었는지, 혹은 전혀 다른 지역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조지 기록만으로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술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태조지가 1차 전투지였는지 여부를 여러 근거를 통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료들에 태조지 전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태조지가 위치한 해안사 부근에서 첫 전투가 있었다면, 이는 공산전투의 실질적 시작이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주요 역사서에 해당 전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전투에서 왕건이 패배했다면, 고려군의 피해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서신에는 해안사 부근에서의 교전이나 승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건을 패퇴시켰다면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이 부근이 전투장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관련된 지명 유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태조지

를 제외하면, 해안사 주변에는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없다. 만약 이곳이 1차 전투장소였다면, 이후 전투가 벌어진 지묘사 부근의 미리사는 2차 전투장소가 된다. 지묘사 부근에는 ‘왕산’, ‘파군재’, ‘지묘동’, ‘전탄’, ‘독좌암’, ‘시랑리’ 등 이곳 전투에서 유래한 지명들이 많다. 왕건이 도주한 앞산 지역에는 ‘왕굴’, ‘장군굴’ 등 관련 지명들이 10개나 있다. 또한 도주 중 왕건이 잠시 쉬었다고 전해지는 칠곡 왕산봉 부근에도 ‘수기석’이나 ‘태평촌’처럼 관련 지명이 존재한다. 이처럼 일시적 체류조차도 지명 유래로 남은 예가 많다. 따라서 만일 해안사 부근이 왕건과 견훤의 첫 전투지였고, 그곳에서 왕건이 패하였다면, 관련 지명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셋째, 해안사가 1차 전투장소라면 동수 또는 미리사에서 서의 전략적 전투 준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왕건이 공산 동수에서 견훤의 군을 기다렸다가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는 공산의 미리사 아래에서 견훤군을 기다렸다가 싸웠다고 전한다. 이들 기록으로 보면, 전투장소가 동수이든 미리사이든, 중요한 점은 왕건이 견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우연한 조우가 아니라, 사전에 작전을 계획하고 지형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진영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경현의 주장으로 보면, 해안사 부근의 전투에 패한 왕건은 동수나 미리사로 후퇴했을 것이고, 견훤의 후백제군은 전력을 다해 그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동수 또는 미리사에 도착하여, 그곳의 지형을 분석하고, 전략을 구성하며, 진영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적·거리적·심리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견훤이 패한 왕건에게 작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허용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넷째, 공산전투의 핵심 인물인 신숭겸 관련 문헌에 태조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공산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전해지는 문헌은 ‘평산신씨장절공유사’와 ‘태사장절공유적’이다. 이들 문헌의 어디에서도 ‘태조지’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0년(927년) 9월 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숭겸은 광해주 사람으로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항상 태조를 따라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웠다.

여기서 ‘항상 태조를 따라’라는 표현은 공산전투 당시에도 신승겸이 왕건과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산신씨문중에서 남긴 문헌에는 ‘태조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문헌상의 부재는 태조지 부근에 있었다는 은혜사의 문헌에도, 영천시와 인접한 경산시의 문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상의 태조지 원문 해석과 그에 근거한 네 가지 의문과 전장에서 살펴본 태조지의 위치와 지형 특징으로 볼 때, 이곳을 왕건과 견훤 군대의 1차 전투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조지 인근 전투에서 왕건이 패배했다는 문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태조지는 은혜사 부근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의 전투에서 패한 후 잠시 머문 곳일 수 있다.

3. 파군재, 전탄, 복현동

고려군이 패한 파군재는 아래 파군재와 위 파군재로 나누어진다. 이 중, 1차로 패배한 아래 파군재의 위치는 현 파군재 삼거리에서 파계사 방향으로 가는 부근으로, 2차로 패배한 위 파군재는 현 파군재 삼거리에서 동화사 방향으로 가는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대구시, 1977;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1988). 아래 및 위 파군재 위치에서 보듯이, 고려군은 지묘사 부근 파군재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이의 원인을 그림 6을 통해 추론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6의 1 위치인 화성명산타운 부근의 지묘천 하곡 폭은 90m 정도로 상당히 좁다. 그리고 지묘천은 환상산맥 속의 곧고 좁은 하곡 속을 흐른다. 그림 6의 2 위치인 팔공새마을금고 부근의 하곡 폭은 300m 정도로 지묘사 서쪽의 동화천 하곡 중 폭이 가장 좁다. 여기에 더하여 지묘사 북쪽은 경사가 가파른 250~500m의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반면 지묘사 남쪽은 120~187.4m의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구릉의 정부(頂部) 사이, 고도 70~80m 부근에는 고갯길이 발달해 있다. 아래 파군재 부근인 이 고갯길은 1918년 1/50,000 지형도에도 나타난다. 이는 이 길이 과거부터 파군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길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곳의 구릉은 동화천의 공격사면(그림 6의 파선)이어서 활처럼 휜 지형들이 가파른 사면으로 발달해 있어, 이 길만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후백제군이 이 같은 지형 특징을 이용하여, 화성명산타운 부근과 팔공새마을금고 쪽의 하곡을 막는다면 고려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동화천 남쪽의 아래 파군재 쪽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백제군이 예상 탈출로인 이 지역을 선점하여 매복함으로써, 고려군은 먼저 파군재를 넘는 주요 길이었던 아래 파군재에서 1차로 패하고, 다시 이곳 동쪽인 위 파군재에서 2차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왕건이 지묘사 뒤의 왕산을 통해 북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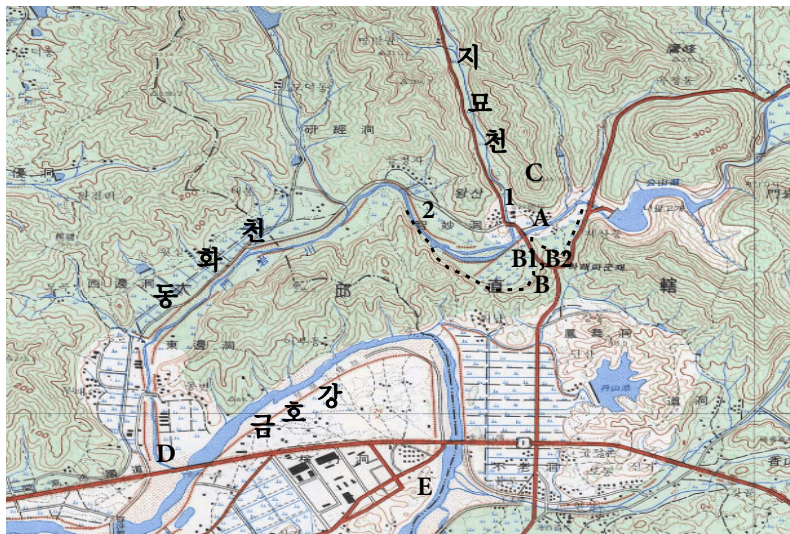


그림 6. 지묘사 주변 지형 및 주요 장소의 위치(A:지묘사, B:파군재 삼거리, B1:아래 파군재, B2:위 파군재, C:왕산, D:전탄, E:복현동, 1:화성명산타운, 2:팔공새마을금고, 점선:동화천 공격사면)

도주하였다면, 그것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왕산 남쪽의 파군제 부근에서 전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파군제의 지명 유래는 실제 전투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화천 하류에 있는 전탄의 역사적 의미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전탄이라는 지명이 공산전투에서 유래하였느냐는 의문이다. 최덕민(2005:17)은 다음과 같이 전탄의 지명 유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살내’라는 지명은 흔히 지적되는 순우리말을 한자어로 옮길 때, 발생하는 오류의 하나일 뿐이다. ‘살내’는 앞에서 언급한 차자표기법 중 세 번째 방법인 훈음차 표기법을 쓰고 있다. 전탄 즉 ‘살내’라는 명칭은 ‘물이 흐르는 화살처럼 빠르다’고 붙인 명칭이다. 이러한 의미가 훈음차를 함으로써 어처구니없게 ‘화살이 내를 이루었다’라는 형식으로 변한 것이다.

최덕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펴본 듯이 위치와 지형 특성으로 볼 때, 전탄은 지묘사 주변의 미리사 전투와 관련된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전탄에 대한 역사학계의 기존 해석이 타당하냐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인 지명의 사실성 여부는 양면성을 가지지만, 전탄의 전투장소적 의미는 해석의 근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탄의 역사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투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다. 고려군은 태조지에서 후백제군에 패배한 뒤 팔공산을 넘어 전탄 지역까지 후퇴하였고, 이곳에서 후백제군과 교전하던 중 신승겸과 김락이 증원군으로 도착하여 후백제군을 미리사 앞까지 밀어부쳤다가 그곳에서 참패했다고 본다.¹⁵⁾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태조지에서의 전투와 신승겸과 김락이 증원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전체 서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살펴본 듯이 태조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곳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승겸과 김락이 ‘증원군’이었다는 주장은 ‘삼국사기’에서 ‘읍지’까지만 아니라, 공산전투 관련 문헌 중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산신씨장절공유사’와 ‘태사장절공유적’의

어디에도 없다. 이는 태조지에서 패배한 후 전탄으로 후퇴하여 그곳에서 견훤군과 일전을 벌였다는 기존 역사학의 주장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지 전투 이후 전탄으로 퇴각하여, 이곳에서 증원군과 함께 후백제군과 전투하였다는 해석은, 태조지 전투가 실재라는 전제 위에 전탄, 미리사, 파군제 등의 지명 유래에 끼워 맞추기식 설정으로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전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탄이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언급한 ‘기다렸다가 크게 싸웠다’는 전술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기존 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려군이 태조지에서 패한 뒤 전탄까지 후퇴하였다면, 후백제군이 전력을 다해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곳의 지형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한 후, 새롭게 진영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전탄 일대는 넓고 개방된 충적평야로, 공격이나 방어에 유리한 고지나 험지가 없어 왕건에게 유리한 지형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전탄이 ‘주요 전투장소’라는 기존 역사학의 해석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굳이 전탄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리사 전투에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일부 고려군들이 동화천 하구를 따라 서쪽으로 도주하다가, 금호강을 건너지 못하고 추격하던 후백제군과 국지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다. 이 또한 왕건이 직접 지휘한 전투는 아니었다. 왕건은 이미 왕산을 타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북현동은 지명유래집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전투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산전투와 다른 지명 유래도 있다. 따라서 이곳이 공산전투와 관련된 전투장소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고려군이 대패한 파군제와의 위치적·지형적·도로적 관계, 그리고 ‘고려사 세가 권제1, 태조 10년조’에 실린 견훤의 편지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현동 또한 국지적인 전투가 이루어진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탄과 북현동은 공산전투의 부차적 전투장소로서, 미리사 전투 이후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산전투의 전투장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해당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산전투의 주요 전투장소는 동수가 아닌 미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사는 동화천 협곡이 끝나는 지점, 곧 현재의 신승검 유적지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고려사에 언급된 ‘기다렸다 크게 싸웠다’라는 지형을 고려한 전술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미리사가 주요 전투장소였을 또 다른 근거는 전투 이후 그 지역에 신승검을 기리는 지묘사가 창건된 점이다. 이와 비교할 때, 동수는 전투장소라기보다는 전투 이전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일시적으로 조우한 장소로 해석된다. 태조지 지명 유래의 기원이 된 은혜사 부근에서 왕건과 견훤 군대가 1차적으로 전투하였고, 그곳에서 왕건이 패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전탄과 복현동은 지명유래에서부터 공산전투와의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다. 특히 전탄은 그곳의 위치와 지형 특징, 전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역사학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요 전투장소였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전탄은 미리사 전투에서 패배한 고려군 일부가 퇴각 도중 후백제군과 국지적으로 전투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복현동도 전탄과 마찬가지로 미리사 전투 후의 국지적인 전투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투장소들의 재해석 결과, 공산전투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태조지, 동수, 미리사, 전탄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기보다는 미리사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이루어졌고, 대패 후, 도주하던 잔여 고려군과 후백제군 사이에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가 다양한 문헌과 지도 분석을 통해 전투장소들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해석하였지만, 이 역시 또 하나의 잠정적 구성이다. 전투장소와 더불어 공산전투 과정 복원에 중요한 왕건의 이동로는 차후 연구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감사의 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조지 원문 해석에 도움을 준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장윤수 교수님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註

- 1) 공산(公山)의 명칭은 신라, 고려에 걸쳐 변함이 없다. 그러다가 조선초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공산은 혹은 팔공산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다(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 2) 대구 팔공산에 있었던 왕건과 견훤 군대의 전투를 공산전투, 공산동수전투, 동수전투, 동수회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공산전투’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공산전투’라 부른다.
- 3)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구읍지 등에는 美理寺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는 美利寺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를 따라 美理寺로 한다.
- 4)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공산전투의 장소는 동수(민병하, 1994; 이인재, 2001), 태조지와 동수 앞 미리사(문경현, 1979), 동수와 미리사(김명진, 2018), 태조지, 파군재, 전탄(이주행, 2015), 태조지와 왕산(최덕민, 2005), 태조지, 전탄, 미리사(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원희정, 2004; 유영철, 2004; 문안식, 2016; 주보돈 등, 2024), 특정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공산동수 전투로 통칭하는 경우(신성재, 2012; 이해준, 2014) 등 다양하다.
- 5) 사(寺)를 일반적으로 달리 쓰는 자(字)로 社, 院, 藪, 刹, 庵, 伽藍, 蘭若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서 金山寺를 金山藪라고 하고, 鉢淵寺를 鉢淵藪라 기록하였다. 동수(桐藪)는 동화사(桐華寺)라는 뜻이다(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 6) 평산신씨역사유적집 영각유허비 설명에 고려말에 미리사가 폐사된 것으로 나온다.
- 7) 고지도, 대구읍지, 대구시사, 대구시지명유래집, 팔공산사적지표조사보고서 등 대부분 자료는 왕산을 표창사 뒤로 기술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대구 지도는 표창사 서쪽 600여 m 지점인 현 팔공보성3차아파트 뒷산을 왕산으로 표시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부터 내려오는 지도와 문헌 기록을 따라 표창사 뒤를 왕산으로 한다.
- 8)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구읍지까지 모든 지리지에서는 미리사 위치를 ‘해안현에 있다’라고만 기술한다. 본 연구는 전투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미리사의 위치도 비정한다. 그

러나 III장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없는 미리사는 그림 2에서 제외하였다.

- 9) 표충사는 과거 지묘사 자리이다. 지묘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온 신승겸의 전사지로서 공산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림 2, 3, 4, 6의 현재의 표충사 위치에 지묘사를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산전투를 기술한다.
- 10) 김명진(2018)은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이라는 연구에서, 920년에 견훤이 신라 대야성(경남 합천)을 공격할 적에 동원한 군대는 보병 1만이었는데, 대야성 전투보다 927년 금성(경주)을 공격한 후백제의 군세는 훨씬 컸을 것이라 보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공산전투 시 후백제군은 최소한 1만을 넘어선 병력으로 추정하였다.
- 11) 왕건은 927년 3월 근품성(문경지역), 927년 4월 강주(진주), 927년 7월 대야성(합천)을 함락하였다. 이를 통해 923년에 귀부한 벽진군(성주), 925년에 귀부한 고을부(영천) 등과 함께 경상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그해 9월 견훤에 의해 근품성, 고을부에 이어 신라의 핵심인 경주까지 함락되었다. 이 과정에 친고려적인 경애왕까지 죽었다. 왕건으로서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12) 역사학 연구에서는 왕건의 패배를 개경에서 경주까지 급히 달려오거나 군사들의 피로가 많이 쌓였고, 견훤군에 비해 군량조차 부족하였고, 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대구시편찬위원회, 1995; 유영철, 2004; 후보돈 등, 2024). 이와 더불어 전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성재, 2012; 김명진, 2018).
- 13) 변성암 바깥의 지질은 대구층, 진주층, 칠곡층, 신라역암, 함안층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퇴적암으로 통칭한다.
- 14) 왕건이 ‘동수에서 고려의 깃발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한 무리들에 대해, 이들을 동화사 일대의 지역민이나 수원승도로 보는 견해(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유영철, 2004; 원희정, 2004; 후보돈 등, 2024)와 본 전투에 앞서 견훤이 보낸 정탐병과 소규모 병력으로 구성된 유인부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문안식, 2008; 신성재, 2012). 두 견해 모

두 본격적 전투 이전의 탐색 상황으로 본다.

- 15)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구시사편찬위원회(1995), 유영철(1997), 원희정(2004), 문안식(2008), 후보돈 등(2024)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명진, 2018, “고려태조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4, 39-77.
- 대구시, 1977, 「달구벌: 대구의 역사·경관·문화재」, 대구: 경북인쇄소.
-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팔공산: 팔공산사적지표 조사보고서」, 대구: 삼정인쇄소.
-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1988, 「우리고장대구: 지명유래」, 대구: 영문사.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대구: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 도수희, 2007, “지명과 역사,” 지명학논문선, 1(1), 9-24.
- 류영철, 2004,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문경현, 1979, “왕건태조의 민족재통일의 연구” 복현사림, 1, 53-114.
- 문경현, 2000, 「고려사 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문안식, 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 서울: 혜안.
- 문안식, 2016, “신승겸의 出自와 후삼국 통일 전쟁기의 활약,” 신라사학보, 36, 211-256..
- 민병하, 1994, “신승겸과 공산동수전투,” 군사연구, 29, 45-80.
- 신성재, 2012,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177-210.
- 원희정, 2004, “공산전투의 역사적 성격,”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도학, 2015, 「후삼국 시대 전쟁 연구」, 서울: 주류성.
- 이인재, 2001, “羅末麗初 申崇謙의 生涯와 死後評價,” 강원문화사연구, 6, 27-42.
- 이주형, 2015, “공산전투 전개 과정과 관련 지명 및 유적지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석, 2021, “3~6세기 대구 봉무동취락의 변천과 성격,”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준, 2014, “申崇謙의 顯刹과 朝鮮時代 墳庵,” 인문과학연구, 42, 259-269.

조우영, 2002, “대구분지 북부 팔공산 지역의 지질에 따른 지형발달의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보돈 외 31명, 2024, 「한 손에 들어오는 대구역사」, 대구: 매산커뮤니케이션즈.

전영권, 2003,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영권의 대구지리」, 대구: 도서출판 신일.

최덕민, 2005, “팔공산의 왕건 설화 지명과 공산전투의 지리학적 탐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춘천시, 2023, 「신승검 사료 번역 연구용역 보고서」, 춘천시.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교신 : 송언근, 4228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51, 229동 1509호(신매동, 시지천마타운)(이메일: unsong@dnue.ac.kr)

Correspondence: Un Gun Song, 42284, 1509ho, 229-dong, Sijicheonma Town, 51 Sinmae-ro, Suseong-gu, Daegu, South Korea (Email: unsong@dnue.ac.kr)

투고접수일: 2025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5년 8월 27일